

중국 안휘성에 고급사 방직공업원 건설 계획

중국은 강소성(江蘇省)의 서쪽 내륙에 자리하고 있는 안휘성(安徽省) 무호고신기술개발구(蕪湖高新技術開發區)에 총 투자액 15억 위엔(元)의 방직공업원(紡織工業園)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. 이 프로젝트는 무호승휘(昇匯)방직공업원유한공사의 투자로, 세번수 코머사를 비롯한 고급사를 주로 생산하는 민영기업으로서, 생산 제품은 해외로 수출하여 외화획득에 기여하면서 중국내에서는 절강성(浙江省), 복건성(福建省), 광둥성(廣東省) 등의 연해(沿海)지역으로 판매하게 된다.

“중국방직상무네트(中國紡織商務net)”의 소식에 의하면, 이 공사는 위의 프로젝트로서 무호고신기술개발구내에 용지 면적 약 93만 평방미터에 40만 추 규모의 최신예 설비를 갖춘 방직공업원을 건설할 계획이다.

제1기 공사는 건설 용지 약 27만 평방미터에 2억 위엔(元)을 투자하여, 2005년까지 20만 추를 설치하고 연간 생산고 8억 위엔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 또한 구공장 시설을 이 용지로 이전·전환하여 얻은 자산 1억 5천만 위엔도 신공장 건설에 충당하게 된다.